

2023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정답

1	⑤	2	①	3	①	4	①	5	③
6	④	7	②	8	④	9	③	10	⑤
11	②	12	④	13	③	14	①	15	①
16	④	17	①	18	④	19	②	20	③
21	⑤	22	①	23	②	24	④	25	⑤
26	⑤	27	②	28	④	29	④	30	④
31	③	32	②	33	⑤	34	②	35	⑤
36	②	37	②	38	⑤	39	③	40	⑤
41	②	42	②	43	③	44	③	45	①

해설

** 화법 **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발표자는 1문단에서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인 수업을 환기하며 전통 모자에 대한 내용에 흥미를 느껴 흑립을 화제로 선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③ 청중에게 친숙한 명칭인 ‘갓’을 언급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지만, 흑립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한 내용은 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2. [출제의도] 발표 자료 활용하기

발표자는 입영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자료 1]은 흑립을 구성하는 대우, 양태, 입영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자료 2]는 대우의 윗부분에 회자가 달려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자료 2]는 양태를 장식한 박쥐 문양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자료 3]은 갈모를 접고 펴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에 활용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청중의 질문 추론하기

4문단에 비나 눈이 오면 흑립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갈모를 가지고 다녔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으므로, 양반들이 갈모를 항상 가지고 다닌 이유를 묻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 화법·작문 **

4. [출제의도]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학생 1’은 다섯 번째 발화에서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대화 목적을 제시하고 대화 참여자의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 ③ ‘학생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대화 중간에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대화의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 ‘어려운 원작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학생 3’의 발언을 일부 재진술하고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⑤ ‘학생 1’은 세 번째 발화에서 ‘학생 2’의 발언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 ‘대중문화 콘텐츠 시장의 성장’과 ‘요약 콘텐츠의 인기 현상’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B]의 ‘학생 3’은 두 번째 발화에서 요약 콘텐츠 제작자에게 해석의 자유가 있다는 ‘학생 2’의 발화 내용에 동의한 후 원작의 메시지가 왜곡된 요약 콘텐츠를 시청하고 그 해석이 원작에 대한 유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추가로 생각해 볼 만한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① [A]의 ‘학생 2’는 ‘학생 3’의 발화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 않으며, 생소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 ② [A]에서 ‘학생 3’은 두 번째 발화에서 ‘학생 2’의 의견을 해결하고 있지만 자신의 의견에 대한 ‘학생 2’의 의견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④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⑤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에게 질문하고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며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있지는 않다.

6. [출제의도] 대화 내용 반영 양상 파악하기

(나)에서 비평문의 현안은 요약 콘텐츠 시청이며, 필자는 현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평문을 작성하고 있다. (나)의 4문단에서 요약 콘텐츠 시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만,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례를 추가하고 있지는 않다.

① (나)의 1문단에서 (가)에서 언급된 요약 콘텐츠의 인기를 입증할 수 있는 요약 콘텐츠의 조회 수를 제시하여 ‘요약 콘텐츠 시청’이라는 현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② (나)의 2문단에서 (가)에서 언급된 요약 콘텐츠의 댓글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③ (나)의 3문단에서 (가)에서 언급된 요약 콘텐츠 시청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필자가 선택한 관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나)의 5문단에서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전문가인 대중문화 평론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요약 콘텐츠 시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조건을 반영하여 제목 작성하기

(나)의 마지막 문단에 드러난 글쓴이의 문제의식은 지속적으로 요약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며,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놓치는 격이라는 것이다. ‘쉽게 얻으려다 본질을 놓치는 요약 콘텐츠 시청’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여 준다. 부제에는 ‘지름길’, ‘고생길’이라는 비유적 표현과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한 대구가 드러난다.

①, ④ 글쓴이의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고, 부제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구는 확인할 수 없다. ③ 글쓴이의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부제에서 대구는 확인할 수 있지만 비유적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 ⑤ 글쓴이의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부제에서 대구와 비유적 표현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

** 작문 **

8. [출제의도] 초고에 반영된 작문 계획 파악하기

3문단에서는 프락토올리고당과 이소말토올리고당이 지니는 각각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을 뿐, 두 올리고당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① 1문단에서 설탕의 대체 식품으로 올리고당이 주목받는 배경을 소개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올리고당을 설탕과 비교하며 올리고당이 가지는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올리고당의 탄수화물 분자 구조가 설탕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소화와 흡수가 느리다’는 올리고당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올리고당 제품에 설탕 등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을 언

급하며 올리고당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9. [출제의도] 내용 점검 및 고쳐쓰기

[A]의 첫 번째 문장의 ‘유사한’을 <보기>에서 ‘유용한’으로 고쳐 썼다는 데에서 단어 선택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A]의 두 번째 문장을 <보기>의 두 번째 문장으로 고쳐 썼다는 데에서 올리고당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때의 유의점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 적용하기

(나)는 올리고당과 설탕의 ‘단맛의 정도’ 차이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다)는 올리고당의 성분명과 올리고당의 함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자료는 ‘기존의 단맛을 기대하면 올리고당을 많이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덜 달게 먹는 식습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는 당류 과다 섭취 시 비만과 고혈압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1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② (나)는 올리고당과 설탕의 열량 차이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2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③ (다)는 올리고당 제품 선택 시 ‘표시사항’에서 올리고당의 ‘성분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3문단의 내용을 보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④ (가)는 ‘표시사항’을 통해 ‘당류 함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다)는 ‘표시사항’을 통해 ‘올리고당 함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4문단의 내용을 보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문법 **

11. [출제의도] 선어말 어미 이해하기

‘계시는’은 어간 ‘계시-’와 어말 어미 ‘-는’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으며, ‘드렸다’는 어간 ‘드리-’, 선어말 어미 ‘-었-’, 어말 어미 ‘-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① ‘끝난’은 어간 ‘끝나-’와 어말 어미 ‘-ㄴ’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니다’는 어간 ‘아니-’와 어말 어미 ‘-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두 ㉢의 예로 들 수 있다. ③ ‘가는’은 어간 ‘가-’와 어말 어미 ‘-는’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았다’는 어간 ‘알-’, 선어말 어미 ‘-았-’, 어말 어미 ‘-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각 ㉣과 ㉤의 예로 들 수 있다. ④ ‘지나고’는 어간 ‘지나-’와 어말 어미 ‘-고’로 구성되어 있고, ‘왔겠군’은 어간 ‘오-’, 선어말 어미 ‘-았-’, 선어말 어미 ‘-겠-’, 어말 어미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각 ㉣과 ㉤의 예로 들 수 있다. ⑤ ‘있겠다’는 어간 ‘있-’, 선어말 어미 ‘-겠-’, 어말 어미 ‘-다’로 구성되어 있고, ‘쓰셨을’은 어간 ‘쓰-’, 선어말 어미 ‘-시-’, 선어말 어미 ‘-었-’, 어말 어미 ‘-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각 ㉣과 ㉤의 예로 들 수 있다.

12. [출제의도] 접사와 선어말 어미의 차이점 이해하기

⑥ ‘놓여’는 ‘놓-’, ‘-이-’, ‘-어’로 구성되어 있다. (물건을) ‘놓다’가 (물건이) ‘놓이다’가 되면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므로 이때 결합한 ‘-이-’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접사로 판단할 수 있다.

① ① ‘구겼지만’은 ‘구기-’, ‘-었-’, ‘-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며 접사가 아니다. ② ②에는 추측의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지 않았다. ③ ③에는 접사만

결합하였지 선어말 어미는 결합하지 않았다. ⑤㉔ '담갔다'는 '담그-', '-았-', '-다'로 구성되어 있다.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며 접사가 아니다.

13. [출제의도] 문장의 구조 파악하기

㉔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으로, 주어는 '이곳은'이며 서술어는 '아름답다'이다.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은 안긴문장으로, 안긴문장이 있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인 안은문장이다.

①㉑에는 주어 '아이가'가 생략된 안긴문장인 '예쁜'이 있으며, '예쁜'은 체언인 '아이'를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다. ②㉒은 주어 '나는'과 서술어 '쌌다'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④㉔은 주어 '날씨가'와 서술어 '추웠으나'로 이루어진 홑문장과 생략된 주어 '날씨가'와 서술어 '따뜻하다'로 이루어진 홑문장이 대등적 연결 어미 '-으나'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⑤㉕은 주어 '눈이'와 서술어 '올지라도'로 이루어진 홑문장과 주어 '우리는'과 서술어 '나간다'로 이루어진 홑문장이 종속적 연결 어미 '-든지라도'로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14.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현 파악하기

'깨끗하지 않다'에서 '하' 앞의 받침의 소리는 [ㄷ]이므로 '하'가 통째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깨끗지 않다'로 쓰는 것이 맞다.

② '연구하도록'에서 '하' 앞에는 받침이 없어 받침 소리가 [ㄱ, ㄷ, ㅂ]이 아니므로 '하'의 'ㅎ'이 남는다. 그러므로 'ㅎ'이 'ㄷ'과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어 '연구토록'으로 쓰는 것이 맞다. ③ '간편하게'에서 '하' 앞의 받침의 소리는 [ㄴ]이므로 [ㄱ, ㄷ, ㅂ]이 아니므로 '하'의 'ㅎ'이 남는다. 그러므로 'ㅎ'이 'ㄱ'과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어 '간편케'로 쓰는 것이 맞다. ④ '생각하다 못해'에서 '하' 앞의 받침의 소리는 [ㄱ]이므로 '하'가 통째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생각다 못해'로 쓰는 것이 맞다. ⑤ '답답하지 않다'에서 '하' 앞의 받침의 소리는 [ㅂ]이므로 '하'가 통째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답답지 않다'로 쓰는 것이 맞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 파악하기

'브르매'는 '브름'의 양성 모음 '·'와 조사 '에'의 양성 모음 'ㅁ'가 어울려 나타나며, '뿌·메'는 '뿌'의 음성 모음 'ㅌ'와 조사 '에'의 음성 모음 'ㅁ'가 어울려 나타난다.

② '쁘·들'은 '쁘'의 음성 모음 'ㅌ'와 조사 '을'의 음성 모음 'ㄴ'가 어울려 나타난다. ③ '거부비'는 '거'의 음성 모음 'ㄱ'와 조사 '의'의 음성 모음 'ㅇ'가 어울려 나타난다. ④ 'ㅁ스물'은 'ㅁ'의 양성 모음 '·'와 조사 '을'의 양성 모음 '·'가 어울려 나타나며, '바느를'은 '바'의 양성 모음 '·'와 조사 '을'의 양성 모음 '·'가 어울려 나타난다. ⑤ '나를'은 '나'의 양성 모음 'ㄴ'와 조사 '를'의 양성 모음 '·'가 어울려 나타나며, '도즈기'는 '도'의 양성 모음 '·'와 조사 '의'의 양성 모음 'ㅇ'가 어울려 나타난다.

** 현대 소설 **

□ 출전: 이태준, 「고향」

1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윤건'의 관점에서 '윤건'의 여정에 따른 사건과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는 것이 특징이다.

17.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그곳(=고향)에는 여러 동무들이 있을 것이다', '친구들이 나를 맞아 줄 것이다'를 통해 조선의 친구들이 자신을 반겨 줄 것을 기대하는 '윤건'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오사카로 돌아가는 배가 아니라 부산행 밤배에서 자신들의 고향인 김천으로 가는 노동자들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눈다. ③ 도시락을 사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윤건이 아니라 조선 청년이다. ④ 윤건은 여비를 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사기 위해 플랫폼에 나갔다가 우연히 조선 청년을 만난 것이다. ⑤ 윤건을 조사하는 사람은 일본인으로 보이는 형사가 아니라 '조선말'을 하고 '조선 사람'으로 보이는 형사이다.

18.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파악하기
'더 큰 운명에 있어서'의 '길동무'로 생각하고 있는 상대가 '○○은행 본점'에 '취직'한 것을 말하고, 자신의 '취직'을 '조선 사람 하나가 헐벗지 않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히는 상황이므로, '속으로' 아니라 '다르랴' 하면서도 불쾌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에 없는 좋은 대답'과 '마음에 없는 거짓 대답'을 해 주는 것이다.

18.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파악하기

'더 큰 운명에 있어서'의 '길동무'로 생각하고 있는 상대가 '○○은행 본점'에 '취직'한 것을 말하고, 자신의 '취직'을 '조선 사람 하나가 헐벗지 않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히는 상황이므로, '속으로' 아니라 '다르랴' 하면서도 불쾌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에 없는 좋은 대답'과 '마음에 없는 거짓 대답'을 해 주는 것이다.

① '마음에 없는 좋은 대답'과 '마음에 없는 거짓 대답'이라는 것을 볼 때, 윤건이 상대의 성취를 축하하고 있거나 상대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윤건은 상대가 듣기 좋을 만한 '좋은 대답', '거짓 대답'을 해 주고 있으므로 상대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9.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고향은 어대시오?'라는 질문에 '대구 지나 김천'이라 답하면서 '우리 다 한 고향 사람들'이라는 부분에서 고향 사람들이라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 출전: (가) 김현귀, 「엑세스권의 기본권적 의의」 (나) 심석태, 「사례와 쟁점으로 본 언론법의 이해」

20.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는 미국과 영국 내 언론의 독과점 상황을 통해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의 등장 배경을, 반론권 및 방송법의 조항 등을 통해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의 실현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민법에 근거한 정정 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정정 보도 청구권과 달리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고 해당 보도에 위법성이 있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성립한다는 것을 통해 두 권리의 성립 요건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① (나)는 권리의 주체를 법률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 않다. ② (가)는 권리의 등장 배경을 언급하고 있으나, 권리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정정 보도 청구권 및 반론 보도 청구권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권리의 의의를 평가하고 있지 않다. (나)는 정정 보도 청구권과 반론 보도 청구권을 대비하며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⑤ (나)는 권리의 실행으로 인해 변화된 양상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2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배런은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보았다.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①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언론 매체가 일정한 재량권을 남용할 때는 구제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을 보호하고 있다. ②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민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해당 보도에 위법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③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상 정정 보도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민법상 정정 보도는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음 후 10년이 지났을 때는 불가하다. ④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과 반론 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며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다.

22.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추론하기

정정 보도 청구권과 반론 보도 청구권은 언론 매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한다. 이때 대등한 방어 수단이라는 것은 언론 매체의 원 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정정 또는 반론 보도가 원 보도가 이루어진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동일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청구한 보도가 원 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 진행자가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원 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③ ㉑은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가 원 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 보도에 비해 신속한 전달 수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④ ㉒은 언론사가 원 보도와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를 할 때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원 보도와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의 관계가 대중적인 주장과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⑤ 반론 보도의 경우 언론 매체의 시청자 또는 독자에게 반론 보도와 원 보도를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여 양측의 주장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 또는 독자가 내리도록 한다. 그러나 정정 보도의 경우 진실하지 않은 원 보도 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 또는 독자가 내리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모두에 적용되는 ㉑의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23.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ㄱ은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조항에 해당한다. 언론 매체에 의하여 비판을 당한 국민이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반론권이다.

① ㄱ은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을 보장하는 방송법 조항이다.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은 언론 매체가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③ ㄴ은 방송이 임의의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차별을 금지하여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고, 사회의 다양성을 방송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ㄷ은 언론 매체 접근·이용권의 형태인 언론중재법 조항이다. 언론사 등에 추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매스미디어를 소유하지 않아도 언론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ㄸ은 자신이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추후 보도의 게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은 증거에 의해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

에 관한 주장이다.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동물 병원의 CCTV 영상이라는 증거에 의해 먹이를 주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적 주장이다.

①(나)의 4문단에 따르면, 민법상 정정 보도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손해를 가한 기자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A가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은 기자 B에게 정정 보도를 청구하려면 민법 제764조에 의거하여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②A는 CCTV 영상에 의해 '모 동물병원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원 보도 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 보도를 청구하려고 있다.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약품을 투약했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A는 원 보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원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론 보도를 청구하려고 하고 있다. ③(나)의 3문단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상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신문의 보도가 있는 것은 2022년 9월 1일로, A가 △△신문의 보도 내용을 알게 된 2023년 9월 1일에는 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언론중재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언론 보도가 있는 후 10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764조에 의거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⑤(나)의 3문단에 따르면,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문을 원 보도와 동일한 지면에 신게 된다.

25. [출제의도] 문맥상 적절한 단어로 바꿔 쓰기
'증진하다'는 '기운이나 세력 따위를 점점 더 늘려 가고 나아가게 하다'의 의미로, '남이 하는 일이 잘되도록 거들거나 힘을 보태다'의 의미인 '돕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비하다'는 '사물 따위를 다른 것에 비교하거나 견주다'의 의미로, '둘 이상의 사물을 질(質)이나 양(量) 따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 보다'의 의미인 '견주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②'기여하다'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의 의미로, '도움이 되게 하다'의 의미인 '이바지하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③'충돌하다'는 '서로 맞부딪치거나 맞서다'의 의미로, '서로 힘 있게 마주 닿다'의 의미인 '맞부딪치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④'계재하다'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신다'의 의미로, '글, 그림, 사진 따위를 책이나 신문 따위의 출판물에 내다'의 의미인 '신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과학 **

□ 출전: 박태현, 「냄새와 맛의 과학」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5문단에 따르면, 후각 결질의 냄새 정보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즉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냄새를 맡으면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추론하기
1문단에 따르면, 20세기 후반 이전의 과학자들은 분자의 구조와 뇌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의 관계를 밝히려 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이후 다른 감각들은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 인식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후각을 이해하려는 접근이 도입되었고, 액셀과 벅은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인 후각 수용체를 발견했다. 따라서 액셀과 벅이 냄새 분자의 구조에 따라 냄새가 인식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3, 4문단에 따르면, 대부분의 냄새에는 수백 종류의 분자가 포함되는데 이 분자들은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후각 수용체와 결합하여 전기 신호를 만들고, 이 신호가 토리에 전달되어 해당하는 냄새의 패턴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두 물질의 냄새 분자가 다르다면,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이 다르다. ③1문단에 따르면, 후각 이외의 다른 감각들은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 인식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후각을 이해하려는 접근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 인식될 것이라는 접근은 후각 이외의 감각에 먼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5문단에 따르면, 대뇌의 후각 결질에는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새로운 냄새의 정보를 기존의 것과 비교하고 눈확이마 결질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냄새인지 판단한다. 어떤 냄새를 새로 맡고 곧 냄새로 판단했다면, 과거의 냄새 정보와 새로 맡은 냄새의 정보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⑤2문단에 따르면, 역방향 경로를 통해 이동한 냄새 분자는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가 막혔을 때 맛을 더욱 풍부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후각 상피로 가는 역방향 경로가 막혔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28.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파악하기
3문단에 따르면, 한 개의 후각 신경 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하고, 4문단에 따르면, 후각 신경 세포에서 만들어진 전기 신호는 후각 신경 세포에서 뻗어 나온 긴 돌기인 축삭을 통해 후각 망울에 있는 토리로 전달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발생한 전기 신호가 한 개의 축삭에 모여 후각 망울로 전달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3문단에 따르면, 냄새 분자는 점액질층을 통과하여 섬모에 있는 후각 수용체와 결합하므로 냄새 분자가 섬모에 닿으려면 먼저 점액질층을 통과해야 한다. ②4문단에 따르면, 냄새 분자와 후각 수용체가 결합하여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후각 신경 세포의 세포막 안팎에서 전압 차가 만들어지면서 후각 신경 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③5문단에 따르면, 후각 망울의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은 신경 세포인 승모 세포를 통해 전기 신호가 강화되어 대뇌의 후각 결질로 전달된다. ④4문단에 따르면,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진 전기 신호가 후각 신경 세포를 통해 토리로 전달되고, 후각 망울에 있는 수천 개의 토리 중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들이 패턴을 만드는 데 신호의 세기도 패턴에 반영된다.

2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는 사람의 후각과 원리가 비슷한 전자 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노 금 입자와 단백질이 결합할 때 결합 여부 및 정도에 따라 빛의 세기가 달라지므로 나노 금 입자는 단백질에 관한 정보를 보여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기능은 토리의 신호를 대뇌로 전달하는 승모 세포의 기능과는 다르다.
①4문단에 따르면, 냄새마다 고유한 패턴 지도가 있어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으로 서로 다른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 전자 코에서 고유한 빛의 분포로 단백질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②3문단에 따르면, 후각 수용체는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한다. 전자 코에서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들은 단백질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므로 후각 수용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③5문단에 따르면, 대뇌의 후각 결질에는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새로운 냄새의 정보를 기존의 것과 비교하므로, 전자 코의 컴퓨터가 빛의 분포를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④4

문단에 따르면, 냄새 분자가 후각 수용체와 결합하면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후각 신경 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전자 코에서 나노 금 입자와 단백질이 결합하면 나오는 빛은 이 전기 신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0.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④는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기도'의 의미이므로 '기억이 되살아나거나 잘 구상되지 않던 생각이 나다'의 의미와 유사하다.
①, ②에서 '떠오르다'는 '솟아서 위로 오르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에서 '떠오르다'는 '얼굴에 어떠한 표정이 나타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에서 '떠오르다'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 나타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 고전 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유충렬전」

31.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파악하기
유충렬은 '큰 산' ㉠을 '장차 신령한 산'이라 생각하고 찾아 들어가고 있으므로 '큰 산' ㉠은 인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도굴' ㉡은 적장이 함정으로 파 놓은 공간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①'소승의 무례함을 용서'하라고 말하는 큰스님의 말, '천한 인생에 팔자 기박하'다고 말하는 '유생'의 말을 볼 때 ㉠은 인물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④㉠에서는 큰스님이 유충렬을 알아보고 있으며, 유충렬은 큰스님에게 '관대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볼 때 ㉠은 인물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⑤㉠은 유충렬이 '신령한 산'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이며, 인물이 고난을 겪고 있지 않다.

3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정한담의 목을 내어 황제 전에 바치려고 칼끝에 빼어 보니 진짜는 간데없고 허수아비의 목을 빼어 왔는지라'를 통해 유충렬이 정한담의 목을 황제에게 바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①'원수 절하고 황후와 태후를 바빠 모셔 본진에 돌아와'를 통해 유충렬의 도움으로 황후가 본진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네 한갓~결단하라'를 통해 정한담이 유충렬을 자극하여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유상궁 오시는 행차에'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큰스님이 백룡사에 찾아온 사람이 유충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자색과~같은지라'를 통해 영릉골 관비가 강 낭자의 자색과 태도를 알아보는 것을, '만 가지로~하더라'를 통해 떠나지 않도록 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B]는 유충렬이 자신을 구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다.
②[B]는 '태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도', '천지가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될지라도'와 같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으나, 상대를 설득하고 있지는 않다. ④[A]는 '소장은 ~충렬이온데'에서 자신의 신분을 언급하고 있으나, 자신의 발화에 대한 상대의 의구심이 나타나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있지 않다.

34.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유충렬이 서해 광덕산 백룡사의 큰스님을 만나는 부분에서 그가 평범한 중이 아닌 초월적 조력자가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영웅의 잠재능력을 표출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①위기에 처한 강 낭자의 이야기가 중단되며 독자의 궁금증을 고조시킨 후 '각설'을 통해 유충렬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단절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련하다~목숨이 경각이라’에서 유충렬이 적장의 피로 함정에 빠지는 부분을 통해 유충렬과 비등한 능력을 지닌 적대자인 정한담이 영웅과의 치열한 군담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원수가 분노하여 일광주를~제가 모른다’와 ‘장성검은 동쪽 하늘에~핏물이라’를 통해 유충렬의 영웅성이 ‘일광주’와 ‘장성검’이라는 신물을 통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저기 가는 저 장수는~우리 고부 살려 주소’라고 황후와 태후가 말하는 부분에서 일반 백성이 전란에서 겪는 수난을 왕가를 통해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인문 ****

□ 출전: 백민정, 『정약용의 철학』
장승구, 『정약용과 실천의 철학』

3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4문단에 따르면, 다산 정약용은 ‘만물개비어아’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묻고 안색을 살핀 다음에야 그들이 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았으며,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보편성이 있으므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다산 윤리학에서의 만물개비어아는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통해 자기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① 3문단에 따르면, 위정자로서 정약용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인을 성취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 따르면, 서로써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추론하기

2문단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자유의지에 의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사회를 선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지와 선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3문단에 따르면, 자유의지로서 행동하여 인을 성취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목이다. 4문단에 따르면, 서로써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5문단에 따르면, 신독은 윤리적 실천을 통해 선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실천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37.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5문단에 따르면, 신독 공부를 통해서 내면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통제하는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신독이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③, ④, ⑤ 5문단에 따르면, 정약용은 신독 공부를 남들이 모르는 일에도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며,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허물과 과오를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독 공부를 통해서 내면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통제하는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신독은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며 선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정신적 구심점이다.

3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2문단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보기>에서 ㉡가 ㉠을 파견하

여 행정 상황을 조사하라고 하였지만 ㉠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 뜻을 따라 백성을 돌보는 선을 행할 수도 ㉡의 눈을 피해 백성을 돌보지 않는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이는 ㉠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행동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가 져야 한다.

① ㉠가 타자에 대한 도리인 인을 성취하려면 인의 실천 원리인 서로써 대하는 마음으로 ㉠를 이해해야 한다. ② ㉠가 ㉠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은 것은 ㉠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인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다. ③ ㉡는 ㉠를 징계하여 ㉠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인을 성취한 것이다. ④ ㉡는 ㉠가 굶주림을 면하기를 원하므로 ㉠가 ㉠를 서로써 대하여 인을 실천하기를 바랄 것이다.

**** 갈래 복합 ****

□ 출전: (가) 이항, 『만보』
(나) 윤동주, 『별뿔 떨어진 데』

39.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화자는 하루가 저무는 시간이자 인생의 황혼을 의미하는 저녁 무렵에 학문적 숙원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기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어둠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의미하는 ‘밤’에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며 고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간적 배경의 의미를 활용하여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와 (나)에는 모두 대상과의 문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에는 모두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는 ‘주저주저 아니치 못할 존재들이 아니냐’와 ‘행복스럽지 않으나’ 등에서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지만, (가)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40.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하자’에 가정적 진술이 드러나지만 ‘새벽이 왔다 하더라도’ ‘암담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① ‘별’의 모습을 ‘또렷또렷’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희망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② 글쓴이가 자신을 ‘젊은이’라고 객관화하여 지칭하며 자조하고 있다. ③ ‘하루살이’가 ‘허공에 부유’하는 모습을 통해 방황하는 글쓴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행복’을 ‘별스러운 손님’에 빗대어 의인화하며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한 가닥 구슬’을 치러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비교하기

[A]에는 자연물인 ‘갈까마귀’와 ‘해오라기’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B]는 자연물인 ‘나무’를 ‘처음’에는 ‘불행한 존재로 가소롭게’ 여겼으나 ‘오늘 돌이켜 생각건대’ ‘행복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부분에서 자연물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드러난다.

① [A]와 [B]는 모두 자연물에 대한 감정 이입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A]에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자연물인 ‘갈까마귀’가 제시되어 있으나, [B]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가)의 화자가 ‘거문고만 등등’ 타는 것은 학자로서 목표한 학문적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느끼는 심정을 거문고 연주로 달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 현대시 ****

□ 출전: (가) 정지용, 『해바라기 씨』
(나) 신경림, 『낙타』

43.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생명’을 의미하는 자연물인 ‘해바라기’를 통해 ‘해바라기 씨’를 심고 ‘해바라기’가 피기를 바라는, (나)는 ‘세상사에 초연한 존재’를 의미하는 자연물인 ‘낙타’와 낙타의 초연한 삶을 의미하는 자연물인 ‘별’, ‘달’, ‘해’, ‘모래’를 통해 ‘낙타’와 같은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① (나)는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에서 도치의 방식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지만, (가)는 도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② (가)와 (나)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활용되지 않았다. ④ (가)는 ‘오오’라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나)는 ‘저승길’과 ‘세상’이라는 대조적인 소재를 사용하였으나 (가)는 사용하지 않았다.

44. [출제의도] 시어의 시적 기능 이해하기

㉡에는 ‘해바라기 씨’를 심은 지 ‘사흘이 지’났다는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며, 사흘이나 지났는데도 꽃이 피지 않은 상황을 통해 ‘해바라기’가 ‘고개를’ 들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해바라기’가 ‘고개를’ 들기까지 기다리지 못해 단념하는 ‘우리’의 상황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의 청유형 ‘-자’를 1연 3행에서 반복하여 ‘해바라기 씨’를 심는 행위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에 드러난 행위인 ‘다지다’를 2연에서 반복해 ‘누나’, ‘바둑이’, ‘팽이’가 땅을 다지는 모습을 제시하여, ‘해바라기’ 꽃을 피우기 위해 여럿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에서 ‘낙타’의 초연한 삶을 상징하는 자연물인 ‘별’, ‘달’, ‘해’, ‘모래’를 나열하여 ‘낙타’와 ‘저승길’을 동행하고 싶은 이유를 부각하고 있다. ⑤ ㉡을 14행에서 반복하여 ‘길동무’로 삼고 싶은 사람이 ‘어리석’고 ‘가엾’다는 특징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보기>에 따르면 (나)의 화자는 자연 현상인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손 저어 대답’하는 것은 ‘세상사’를 ‘물으면’ ‘아무것도 못 본 체’하겠다는 것이다.

② ‘저승길’에 간 화자가 ‘다시 세상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를 초월하여 죽음과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③ ‘낙타가 되어 가겠’다는 것은 누군가 저승에 있는 화자에게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고 할 때 하는 대답이므로 죽음의 세계에서 삶의 세계로의 회귀를 나타낸다.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세상에 나간 화자가 낙타로 살다가 저승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삶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로의 회귀를 나타낸다. ④ ‘낙타’로 다시 태어나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겠다는 것은 세상사에 초연하게 살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삶은 ‘슬픔도 아픔도’ 있었던 이승에서 세상사에 초연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장 어리석은 사람’과 ‘가장 가엾은 사람’은 화자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며 ‘낙타’처럼 살아온 사람이다. 화자는 이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으므로 ‘길동무’가 되어 ‘등에 업고 오겠’다고 하고 있다.